

빈수레 요란한 '저자 약력'

책을 산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는 생각을 이따금씩 한다. 서점에서 짧은시간 동안 훑어보는 것만으로 그 책을 올바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아무리 겉표지는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머리속으로 생각해도 실제로는 제목, 아니면 저자나 역자의 후기 혹은 약력에 눈이 많이 가고 그 첫 인상에 따라 책을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가 많다. 확신 없이 책을 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양서를 평가하는 나름대로의 얼치기 기준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령 서문이나 후기에서 과도하지만

큼 편집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번역서는 십중팔구 애초의 번역이 불성실했다는 걸 암암리에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라든지 하는. 읽어보면 대개는 역시 편집부에서도 원초적으로 부여받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씩씩하게 확인한다. 반면 용어선택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토로하는 역자의 번역은 의외로 성실하다는 느낌을 준다. 빈수레는 역시 요란한 것일까?

'요란한 빈수레'는 저자나 역자의 소개에서도 마찬가지다. 명함판 크기의 컬러사진에 '~협회 회원, ~위원회 이사' 같은 '감투'의 단순나열은 마치 이력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책의 내

용과는 무관한 저자의 수많은 '감투'들은 독자에 대한 서비스라기보다 일종의 허세라는 느낌이 들어 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일단 씌어진 책은 저자의 개인적 의미부여보다는 그 책이 전체 문화의 관련성 속에서 갖는 자체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외국의 경우 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자에 대한 소개조차 그다지 일반화된 관행은 아니라 한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한편의 책을 전체 문화라는 커다란 틀에서 파악하느냐, 저자라는 한 개인의 좁은 울타리에서 파악하느냐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는 아닌지.

저자 소개나 후기의 강조는 우리대로의 전통 내지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화려한 경력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식의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좀더 개방적이고 전체를 지향하는 자리로 승화된 관행이 뿌리내릴 기대해본다.

—김지원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호 / 1991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收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孝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愼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瑛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載鍾	鄭雲瑛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讓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鎭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까지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필기하여 본사「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무심코 쓰는 우리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뜻밖의 의미심장한 본래의 뜻을 접하게 된다. 언어 속에는 특정한 언어공동체의 정신활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소리로서 드러내는 상징체계인 만큼 인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말의 기원을 통해 겨레의 정서와 의식구조를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점에 착안한 정호환교수(대구대 국어교육과)의 「우리말의 상상력」(정신세계사) 가운데 다음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미래와 용 신앙 아직 다르지 않은 시간을 '미래'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의 세상을 이리기도 한다. '미래'는 한자어인데 이와는 좀 다르지만 미래 개념을 지닌 순우리말로 '미리'라는 부사가 있다. '어떤 일이 생겨나기 전에'란 뜻을 가진다. 우리말의 부사 '미리'는 미래의 예언자이자 물을 다스리는 '미르(龍)' 곧 용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 신앙은 호랑이 신앙에 못지 않게 아주 폭넓은 분포를 보인다. 흔히 농경문화권에서는 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물을 다스리는 용신이 야말로 풍년과 흉년을 좌우하는 두려운 존재라고 믿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용'은 만주어로는 '링'으로 영혼의 뜻으로 쓰였다. 고유어로는 '미르(밀/미르기)'였으니 우리 조상들은 물과의 깊은 연관을 인정하

였던 것이다.

▲풀과 목숨 초본과의 식물에 속하는 모든 것을 흔히 '풀'이라고 한다. 모듬지기 살아 있는 생물은 물과 함께 풀이나 나무와 같은 녹색식물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다. 물과 풀, 그리고 불(태양)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소리의 상징체계로 본 '풀'의 프르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어사적으로 보아 유기음 포은 무기음 ㅁ과 ㅂ보다 뒤에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물과 불의 빛깔이 먼저 언어에 투영되고 그 뒤에 '풀'의 빛깔이 인식됨으로써 '물/불/풀'의 자음체계에 맞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풀'은 중세어에 '풀'(「월인석보」)로 나타나며 그 변이형에 '푼'(「중간본두시언해」)이 보이기도 한다. '풀'에서 모음이 바뀌거나 접미어가 붙어 다양한 낱말의 겨레를 이룬다. 이를테면 '푸르- / 퍼령- / 파랑-'이 그러한 분화유형에 드는 형태들이다.

▲움과 구멍 땅을 파고 그 위를 거적으로 덮고 다시 그 위를 흙으로 덮어 겨울의 채소나 화초를 두는 데를 '움'이라하며, 베어낸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싹도 '움'이라고 한다. 어두운 굴과 같은 장소에 넣어둔 채소에서 싹이 튼 것이나 나무의 뿌리에서 싹이 터 나오는 것도 '움이

튼다'고 한다. 중심을 이루는 의미가 주변적인 것으로 전이되어 간 예라할 것이다. 움은 또다른 굴의 변형으로, 생산적이고 여성적인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웅녀도 움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함은 대단히 암시적이다. '우물'이라는 말도 '움의 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삶의 본거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슬과 되돌아감 통구스말에서는 가슬을 '가시[Kasi]'라고 하고, 우리말에서도 방언에 '가슬(가실)'이라고 한다. 혹시 가슬과 '되돌아감' 사이에 무슨 상관은 없는 것인지. '가슬·가실'은 바로 겨울의 옛말인 '거스르(거슬)'와 같은 어형으로 모음교체를 따라서 '가슬·가실·가실래'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겨울의 되비치는 속성이 가슬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과 뒤 과연 '죽음'은 방위의 개념으로는 어느쪽을 나타낼까? '죽다'의 비속한 표현으로 '뉘지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뉘지다'는 '두어지다'의 줄임말로서 '두다+지다'두어지다)뉘지다(~뉘지다)로 풀어볼 수 있다. 중세어 자료를 보면, '두다'는 '뉘다'(「석보상절」)의 변이형임을 알게 되는데, 이때 '뉘'은 '뉘(ㅎ)뉘'과 같이 이중성체언이 변형된 것이다. 흔히 뒤가 방위로는 북쪽을 뜻하고, 계

절로는 겨울을, 동물로는 곰이나 뱀을, 별로는 북두칠성을, 소리로는 우면조를, 성으로는 여성을 상징한다. 특히 여성상징과 연계지를 때, 대지(땅)나 물 역시 여성 혹은 어머니의 성격을 땀을 상기하게 된다. 땅으로의 회귀, '죽다'가 '뒤'에서 비롯됨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가루와 분절 가루는 '가락'으로도 그 모습을 갈래지어간다. 물레로 자른 실을 감는 쇠꼬챙이를 가락이라고 하거나 이것을 실을 갈라가 지런히 감음으로써 쉼의 단위가 된다. 실 한가락이 이어져 뿔어나움을 연상하여 노래의 어울림을 '가락'이라고 한다. 가락국수나 가락엿 또한 예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가루'는 어말모음이 떨어져 '갈-'계의 꼴로 나타나기도 한다. '갈다'는 굵은 곡식알을 잘게 쪼개어놓는 동작을 말하며 기차 또는 자동차를 옮겨타는 일을 '갈다·갈아타다'라고 한다. 생각컨대 차를 갈아담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림, 즉 바로 앞서 풀이한 분화의 분기점을 전체로 한 것이 아닐까. '갈기갈기, 갈래'와 같은 형태도 가루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화된 꼴로 판단된다. 흔히 종류를 '갈래'로 말하는데, 갈라진 한무리 혹은 그러한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의 족속을 '겨레'라고 하는바, 이는 갈라진 사람들의 무리, 혹은 흐름을 이르는 말이다.